

# “아~추워, 때 빼고 광내볼까”...12월 가볼 만한 ‘온천 여행’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쌓인 몸의 피로함과 마음의 피로함을 훌훌 털어버리고 '때 빼고 광 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할 때다.

이럴 때 가볼 만한 곳이 전국의 온천이다. 생명이 물에서 와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어머니 몸 속 양수 속에서 열 달을 살았기 때문일까, 누구나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진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여행'이라는 테마로 '12월에 가볼 만한 5곳'을 선정, 발표했다.

## ◇석모도 미네랄 온천(인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강화도 외포항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석모도 예전에는 배를 타야 갈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석모대교가 개통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날씨 상관 없이 들를 수 있다. 석모대교가 개통한 뒤 처음 맞는 겨울인 만큼 지난 1월 개장한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 더욱 명소가 될 듯하다.

지하 460m 화강암에서 용출한 미네랄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풍부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스트론튬, 염화나트륨 등이 그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린다.

그것도 모자라 노천탕이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차가운 바닷가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물 속에 몸을 담근 채 저물어 가는 겨울 태양이 선사하는 긴 노을을 감상하는 것 만한 호사는 없다. 노천탕이 15개나 되니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골라 들어가 태양과 바다의 협연이 시작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오후 3시쯤 입장하면 온천욕도 충분히 즐기고 낙조도 감상할 수 있다. 오후 9시까지 운영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많이 추워지니 그때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032-980-3664

## ◇척산온천(강원 속초시 관광로)

눈 쌓인 설악에 올라 비경을 감상하던, 해수욕장을 찾아 흐릿한 겨울바다의 낭만을 즐기던 겨울철 강원 속초시에 왔다면 꼭 들를 곳이 있다. 척산온천이다.

사계절 모두 이용하면 좋은 곳이지만, 바닷가 산책이나 산행으로 몸이 얼기 마련인 겨울철에는 특히 좋다.

수온이 50도 안팎이라 온천수를 전혀 데우지 않고 천연 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그 덕에 원탕에 있는 성분이 고스란히 보존된다. 리튬이 포함된 갈알칼리 온천수는 노폐물 제거 효과가 크다. 한 번만 몸을 담가도 살결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소 성분 덕에 입을 행구면 양치가 되는 점도 이채롭다.

척산온천이 위치한 노화동은 예부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우물(溫井)'이라는 뜻을 가진 '온정리'라 불렸다. 한겨울에도 웅덩이 물이 잘 얼지 않아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터로 애용했다고 한다. 1970년대 온천수가 대량으로 용출되며 척산온천이 세간에 알려졌다.

척산온천휴양촌과 척산온천장이 이곳 대표 온천이다. 이 중 척산온천휴양촌에는 남녀 노천탕이 조성됐다. 한겨울 노천탕에 들어가 있으면 머리는 차고, 몸(발)은 따뜻한 '두한족열(頭寒足熱)'을 만끽할 수 있다. 눈이라도 내려주면 금상첨화다. 속초시청 관광과 033-639-2539

## ◇수안보양성문강 온천(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양성면 일대)

충주에 가면 수안보의 약알칼리, 양성의 탄산, 문강의 유황 온천욕 등 '삼색 온천욕'을 경험할 수 있다.

수안보 온천은 '왕의 온천'으로 통한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이성계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고, '정종향교지'에 속종이 이곳에서 온천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임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대부가 의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 시절, 치료와 치유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강정은 수질이다. 자연 용출 온천으로 힘과 성분이 뛰어나가는 평가를 듣는다. 수온은 33도로 온천장에서 물을 식힌 뒤 공급한다. pH 8.3 약알칼리성으로 칼슘과 나트륨, 불소, 마그네슘 등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해 온천욕을 하면 피부가 매끈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노천탕에서 알싸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고 싶다면 수안보파크호텔과 한화리조트 수안보온천에 묵으면 된다.



강원 속초시 척산온천 휴양촌 여성 노천탕



충북 충주시 한화리조트 내 노천탕



함평군 해수찜 집 내부



인천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 노천탕에서 바라본 서해 일몰.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양성 온천은 상큼한 탄산 온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물에 들어가면 툭툭 터지는 탄산방울 때문에 따끈따끈한 느낌을 받는다. 탄산음료처럼 톡 쏘는 맛과 재미도 있지만, 모공이 확장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싶어 흐뭇하다.

문강온천은 유황 온천이다. 아쉽게도 11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20~4

## ◇함평 해수찜(전남 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땀을 뺀 것도 모자라 일상에서 쌓인 피로도 모조리 풀고 싶다면 함평으로 달려가자. 손불면 공산리에 전통 방식으로 해수찜을 즐길 수 있는 집이 여럿 있다.

해수찜은 즐기는 방식이 색다르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해수탕과도 다르다.

찜질방으로 같이 입고 나무로 만든 방에 들어간다. 한 가운데 네모난 탕에는 해수가 담겼고, 썩이 든 볏짚이 물에 떠 있다. 잠깐 기다리면 직원이 1300도로 달군 시멘트 유황석을 커다란 삽에 담아 와 탕에 넣어준다.

물을 넣자마자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온이 80~90도까지 치솟으며 부글부글 끓는다. 그 순간 증기가 나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 증기로 몸을 한껏 데운 다음 뜨거운 해수를 부어 적당히 식힌 수건을 목, 어깨와 등, 허리 등을 덮어준다. 뭉쳐든 근육이 서서히 풀려감을 느낄 수 있다. 해수가 적당히 식으면 대야로 이를 떠서 온 몸에 끼얹는 것으로 해수찜을 마무리한다. 피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뽀송뽀송하고 매끈매끈한 피부만 남는다. 해수찜은 바닷물과 달리 끈적거리지 않아 그대로 말리거나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된다.

해수찜을 마친 뒤 인근 돌머리 해수욕장과 해변 위쪽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1300리 해안누리길' 중 하나인 '돌머리 해안길'을 둘러보자. 저녁 무렵이라면 이름

다른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고즈넉한 겨울을 즐기고 싶다면 자사서원과 모퉁마을을 찾을 만하다. 함평에 온 김에 육회비빔밥을 맛 보자. 전국의 수많은 미식가가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올 정도로 별미다. 삶은 돼지비계가 함께 나오는데 그릇에 돼지비계를 한 숟가락 넣어 함께 비비면 더욱 맛갈스럽다. 끝자리 2·7일에 서는 오일장은 지역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많으니 참고하자.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84

## ◇해운대 온천(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10번길)

'해운대' 하면 당연히 바다를 떠올리지만, 유서 깊은 해운대 온천도 있다.

특히 8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할매탕은 해운대 최초의 대중 목욕탕으로 관절염과 근육통을 달고 사는 노인과의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이에게 오랜 세월 사랑받았다. 할매탕은 2006년 해운대 온천센터가 들어서면서 철거됐으나 가족탕으로 거듭나 옛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탕장을 거치지 않고 지하 900m에서 바로 올라와 짙은 짙은 온천수는 해운대 온천의 가장 강력한 매력이다. 탕 안 밸브를 열면 하얀 수증기를 머금은 온천수가 팔팔 끓어오른다. 물은 부드럽고, 물맛은 짜다. 지하 화강암 틈으로 해수가 유입해 섞이면서 약알칼리 고열 온천수가 됐기 때문이다.

온천욕을 하고 나오면 혈액순환이 잘돼 몸에 열기가 오래 느껴진다. 온천욕을 한 뒤에는 수건으로 닦지 말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다.

미포에서 승정로 이어지는 달맞이길을 걸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해미루 전망대에 서자. 해운대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해운대구청 관광문화과 051-749-4085

뉴스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가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